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경축이동

Korean Catholic Church Sunday Bulletin

2024년9월22일(제2168호)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도철 베드로 916-690-6555  
 연령회장: 최중구 안토니오 916-747-8431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지혜서 3:1-9

제2독서

로마서  
8:31-39

복음

루카  
9:23-26

“하늘을 쳐다보며 죽는 것이 낫다.”

오늘은 한국 순교 성인의 대축일입니다. 103위 순교 성인은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셨고, 삶으로 실천하신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9,24)

우리나라에 많은 순교 성인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바탕으로 그들이 어떻게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24위 순교성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1760-1801)는 “사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어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의를 배반하고 사는 것은 죽는 것만 못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순교자들은 한번 주님을 선택했고, 끝까지 주님께 대한 의리를 죽기까지 지킨 것입니다. 순교성인들은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께 대한 충성서약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순교성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살을 저미고 뼈를 부러뜨리는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하느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고 평화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정약종은 “땅을 내려다보면서 죽는 것보다 하늘을 쳐다보며 죽는 것이 낫다.” 라며 누운 채로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고 참수의 칼날을 받아 순교하셨습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겠다.’ 는 단 한마디만 해도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교 성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약종은 “천주를 높이 받들고 성기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 천주는 천지의 큰 임금이요, 큰아버지입니다. 천주를 성기는 도리를 알지 못한다면, 이는 천지의 죄인이며 살아 있어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되도록 편한 방법과 가급적이면 쉬운 길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느낍니다.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인내하기보다 이를 피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통은 나쁜 거야.’ 라며 나에게 짊어진 십자가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순교자들 역시 죽는 순간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잡혔을 때 불안함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 역시 인간적인 나약함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순교성인들은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으로 승화시킨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었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였고, 그래서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스스로가 짊어지며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십자가를 맡길 수는 없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촛불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세상에 밝은 빛을 전해 줍니다. 하지만 그 빛을 내뿜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희생은 필수적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무겁고 힘이 들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면 비로소 부활의 삶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순교 성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의 증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앙인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이들이 되어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찬양’** (마태 5,16 참조)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의 정성(지난주)	
9월24일(화)	연중 제25주간 화요일	오후 7시30분	주일헌금 교 무 금	\$ 1,400.00 \$ 0.00
9월25일(수)	연중 제25주간 수요일	오전 8시	성 물 방 자 선 비	\$ 97.00 \$ 0.00
9월26일(목)	연중 제25주간 목요일	오후 7시30분	성소후원 도네이션 등	\$ 0.00 \$ 1,830.00
9월27일(금)	성 빈센치오 드 폴 사제 기념일	오전 10시		
9월28일(토)	연중 제25주간 토요일	오후 7시30분	합 계	\$ 3,327.00
9월29일(주일)	연중 제26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학생: 40명 성인: 201명
교무금 봉헌자	없음(야외미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9월 20일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로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앙에 자신의 목숨을 바친 103위 한국 교회 순교 성인을 기리는 날입니다.

103위 성인 가운데 기해·병오박해 순교자 79명은 1925년에, 병인박해 순교자 24명은 1968년에 시복되었고 1984년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모두 시성됨으로써 성인품에 올랐습니다. 이 중에는 파리 외방전교회 출신 10명의 선교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의 국적은 프랑스지만, 한국 선교사로서 한국인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므로 한국 교회에 속하는 성인입니다.

한국 성인들은 성별과 나이를 막론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56명이 남성이며 여성은 47명입니다. 고작 13세의 나이에 순교를 택한 유대철 베드로 성인부터 78세를 일기로 순교한 유체칠리아 성녀까지 모두 ‘믿음’이라는 위대한 신앙으로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신분과 직업 또한 아주 다양합니다. 양반 출신부터 중인, 상인, 승지, 선공감과 광흥창의 관리, 군인, 궁녀 등이 있는가 하면 죄신 장사를 하거나 길쌈과 샅바느질 등으로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던 순교자도 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 10명을 제외한 한국 성인 93명 가운데 성직자는 김대건 신부가 유일하며, 나머지는 모두 평신도입니다. 이는 평신도의 믿음이 얼마나 넓고 깊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의 교회 활동과 순교는 그 자체로 한국 교회의 평신도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종교가 평신도에 의해 지켜진 신비한 현상은 한국의 특수한 윤리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임금과 아버지에게 대한 충과 효를 최고의 윤리로 강조하는 사회에서 성인들은 “만물을 조성하시고 상선벌악하시는 천주를 결코 배반할 수 없다”는 신앙고백을 했습니다. 성인들은 가족·혈연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도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순교를 택한 겁니다. 성인들이 혈육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혈육 사이에서 서로의 순교를 격려하는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승화됐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 여러 순교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이러한 이유입니다.

한편, 한국 천주교회는 현재까지 103위 성인과 함께 124위 복자를 배출했습니다. 5월29일은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로 2014년 방한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됐습니다. 이들은 1791년 신해 박해부터 1888년 기축년까지 이어진 박해로 순교한 이들입니다.

현재 교황청 시성부에는 이들에 대한 시성 건과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 건, 하느님의 종 133위와 하느님의 종 81위, 덕원의 순교자 38위의 시복 안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오로지 신앙의 힘과 은총으로 박해를 견뎌 오늘날 우리에게 소중한 신앙을 물려준 이들의 시복시성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2022년, 가톨릭평화신문 내용입니다.)

◎오늘의 미사지향 (미사신청: 전례부장 916-990-6531/사무장 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서정선 엘리사벳 영혼	서국은 바오로	생	조유원 요셉 영육건강	조유희 밀지다
연	더글라스 맥 윌리엄 영혼	김순녀 도미질라	생	조영숙 도미니카, 최재진 모니카	연령회
연	허정님, 이인용 영혼	김미숙 모니카	생	(생일) 유정임 가브리엘라 영육건강	성모회
연	김기수 안드레아, 서향자 글라라 영혼	김미숙 모니카	생	박세덕 영육건강, 류승숙 빠른회복	류승교 바오로 류재순 마리안나
연	한오임 소피아, 김힐라리오 영혼	김미숙 모니카			
연	홍이나시오 영혼	홍세라피나	생	이종만 요셉, 이영숙 데레사 영육건강	임혜숙 그라시아
연	염규홍 안드레아 영혼	성모회	생	(생일) 에런 사이먼 영육건강	
연	박동완 베드로, 이순애 엘리사벳 정순음 안나	박원상 토마스	생	고원석 바오로, 고공자 벨라벳타 영육건강	
연	유재표 베드로, 최두능 안나	유정임 가브리엘라			
연	박수경 루시아 영혼	이서향 미카엘라			

◎공동체 소식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1. **본당 사목회의**  
일시: 22일(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사목위원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2. **본당 울뜨레아**  
일시: 25일(수) 오후6시 성가대방  
꾸르실리스타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본당 꾸리아**  
일시: 29일(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각 뽀레시디움 4간부는 모두 참석바랍니다.
4. **구역모임/단체활동**  
7구역: 27일(금) 오후6시 이서향 미카엘라(맥)  
10구역: 21일(토) 오후5시 안기창 프란치스코/요안나(맥)  
복지부: 10월5일(토) 오후3시 식재료준비 및 모임  
6일(주일) 오전8시 홀리스 음식 봉사  
연령회: 10월6일(주일) 교중미사후 JJ Korean BBQ
5. **본당 구역장 회의**  
일시: 10월5일(주일) 교중미사 후 엘리사벳방  
각 구역장님께서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6. **성령찬미미사 및 성시간**  
일시: 10월3일(목) 저녁8시. 성당  
저녁7시(찬미) 저녁7시 30분(목주기도)  
저녁8시(미사, 성시간 및 안수예절)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7. **성모신심미사 및 성시간**  
일시: 10월5일(토) 오전10시30분. 성당  
(일반 신자분들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사후 성당에서 요셉회.안나회가 있습니다.
8. **양업 토마스 공동체 (리노공소) 미사**  
일시: 10월6일(주일) 성당에서 오후 1시 출발  
참여단체: 셋별Pr. 정의의모후Pr.  
리노공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9. **10월 구역미사 (9구역)**  
일시: 10월11일(금) 오후4시(예정)  
장소: 박문교 클라라 (자택)  
구역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 **본당 골프대회 (리노공소/주일학교 기금마련)**  
일시: 10월13일(주일) 티오프: 오후12시 부터  
장소: Cherry Island Golf Course 참가비:\$100  
참가신청: 22일(주일)부터 미사 전.후  
행사 당일은 오전10시 미사 한 대만 있습니다.  
문의: 부회장 장현철 엘리야

**감사합니다(도네이션)**

새크라멘토한인회장(\$300)S.F. 장애인체육회장(\$200)  
메리서부동산/재정(\$200) A Plus 치과(\$200) SoHo  
Sushi(\$200)리모델링 King(\$100)올림픽미용실(\$100)  
현물: 김선식(4다즌골프공)

11. **북가주 성령 쇄신 봉사자 협의회 가을피정**  
기간: 10월4일(금) 오후5시~6일(주일)오후12시  
참가비: \$270 (신청마감: 9월22일)  
문의/신청: 본당 성령기도회장 김은영 폴리나

12. **사랑의 급식 안내**

- 1) **9월22일(주일): 1-2구역**  
일시: 22일(주일) 모든미사  
메뉴: 콩나물밥                   금액: \$5
- 2) **9월29일(주일): 성령기도회**  
메뉴: 김치찌개                   금액: \$5

13. **축하합니다**

셋별Pr. 1000차 주회함(10월1일)을 축하합니다  
많은 기도와 축하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4. **감사합니다**

**광고(25년 달력/주보):** Catholic Funeral(\$200)  
Gormley Funeral(\$200)메리서부동산/재정(\$500)  
**사랑의급식(1-2구역):**수익금 \$730  
(도네이션포함) 도네이션:최금주(\$100) 송돈희(\$100)

◎ **정혜 도서관, 자율 개방 도서관으로 운영**

시기: 9월22일(주일) 부터 (연중 전면 개방)  
방식: 대출장부에 직접 기록후 대출, 한 달내에  
반납바구니에 자율반납 (1회 대출한도:3권)  
문의: 교육부장 박명혜 엘리사벳

◎ **그룹 성경공부반 모집 (비대면 Zoom)**

진도: 창세기   교재비: \$30  
문의/신청: 곽유경 데레사 (415-652-2589)

화답송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 - 라

전례봉사	연중 제25주일 (9/22)	연중 제26주일 (9/29)	연중 제27주일 (10/6)	연중 제28주일 (10/13)
미사해설	김아영 / 이해련	지혜진 / 조용주	박문교 / 정미정	김진영 마르타
독서	9시	지마리 / 임가빈	박예린 / 허준희	박예진 / 황건영
	11시	송돈희 / 정미정	윤재경 / 윤은실	김동현 / 김혜진
복사	9시	황건영 / 박예린	지마리 / 임가빈	허준희 / 박예린
	11시	최준우 / 권오승	김영준 / 장현철	김규철 / 윤지현
헌금위원	셋별Pr.	천상의모후Pr.	셋별Pr.	천상의모후Pr.

(광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주보제작: 사무장 박프란치스코 S (909-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353-1112  
samuraisushisac.com

### 1.2.3 Auto

정비/수리/각종부품교환  
바디 수리/판금/페인트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916-807-4886

###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 최병업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업(바오로)  
916-363-2345

###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 Angel Garden Care Home

9873 Traveler Court Elk Grove, CA 95624  
조영숙(도미니카) 530-886-9529  
[ycho11281128@gmail.com](mailto:ycho11281128@gmail.com)

- ▶ 케어홈 운영 상담 가능
- ▶ 구인광고

- 40세이상 여성으로 가사경험이 풍부하신 분  
플타임. 파트타임 가능/ 시간당 \$20 / IRA가능(희망자)



#1 KOREAN CHICKEN  
모임/생일 Catering 주문 환영  
부치킨  
916-840-5535  
조현화(헬레나) 916-728-8585  
KP market, #411

### 서은미 부동산

**ONE**  
REALTY ONE GROUP  
COMPLETE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

### 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mailto: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 CATHOLIC FUNERAL CEMETERY SERVICES

(새크라멘토교구 직영)  
6509 Fruitridge Road  
65<sup>th</sup> Street  
Sacramento, CA95818  
한국세션 담당 Beda  
916-840-2156  
279-799-8572

### 장 의사 W.F.Gormley & 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http://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916-342-7072



HANDMADE SOAP & CANDLES  
\*\*\*쉐 줄리아 공방\*\*\*  
수제 비누, 샴푸바, 캔들, 디퓨저,  
One day Class. Thank you gifts  
[/chezjulia\\_banheemom](https://www.instagram.com/chezjulia_banheemom)  
박지은(아델라)  
626-617-2215



### 스마일마켓 쿠폰판매

※ 판매금액의 15% , 본당 재정 수입  
여성부장 최재진 모니카  
916-798-6577  
성물방 이나숙 데레사  
916-201-5630

### 양업토마스공동체 (리노공소) 후원

고추장. 된장. 도토리 국수. 참기름. 고춧가루 판매  
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공소부장(916-591-0179)